

고흥, 수제맥주브루어리 활용 도시재생 본격화

입점 창업팀과 매장 운영 등 협약…내달 2일부터 운영
상인·주민과 상생 도모…“지속가능 브랜드 육성 지원”

고흥군이 수제맥주브루어리를 활용해 도시재생에 들어간다.

27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고흥읍 전통시장 인근에 조성된 2층 규모의 시설로, 1층은 양조·창업 공간, 2층은 수제맥주 전문점(PUB)과 창업 공간으로 구성, 지역관광·먹거리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 수제맥주브루어리의 운영 기반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안

정적으로 매장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수제맥주브루어리는 고흥읍 전통시장 인근에 조성된 2층 규모의 시설로, 1층은 양조·창업 공간, 2층은 수제맥주 전문점(PUB)과 창업 공간으로 구성, 지역관광·먹거리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수제맥주브루어리는 2월 2일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간다. 입점 창업팀은 도시재생

사업 취지에 맞춰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창업 공간 운영을 한다. 협약식 이후 열린 차담회에서는 개장 초기 운영 안정화 방안, 고흥 수제맥주와 로컬푸드 퍼어링 고도화, 전통시장·인근 상권과의 상생 협력, 공공 홍보·이벤트 기획, 위생·안전·서비스 품질 기준, 경기 교육·컨설팅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고흥 스페이스 푸드 체리지’ 등을 통해 총 5개 창업팀을 최종 선정했으며, 메뉴 개발과 브랜딩, 홍보·마케팅, 창업 실무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고흥읍 수제맥주브루어리 일원에서 열린 도시재생 수제맥주축제 ‘고흥 비어락(Beer 樂)’은 지역민과 관광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브루어리 기반 도시재생 콘텐츠의 가능성은 확인한 바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제맥주브루어리는 창업팀과 상인·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 거점이다”며 “입점팀이 안정적으로 경작하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홍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도시재생뉴딜사업 수제맥주 창업공간 협약식

〈롯데·수제맥주 창업으로 예상 고흥읍 도시재생의 미래〉



고흥군은 최근 고흥읍 전통시장 인근에 조성된 수제맥주브루어리의 본격 운영에 앞서 입점 창업팀과 고흥군 간 매장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순천 상공인들 “국가 전략 소부장 제조 권역 재편을”

상공회의소 입장문 발표

산업 공동화·기속화 우려

“제도적 장치 등 반영해야”

여수·순천 상공인들이 여수 율촌, 순천 해룡으로 연결되는 광양만권을 반도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 소부장 특화 제조 권역’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장을 내놨다.

여수·순천 상공회의소는 27일 여수 상의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대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남 동부권을 국가 전략적 산업의 한 축으로 명확히 위치시켜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전남·광주 대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의 향방과 지역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 전략 사안이다”며 “산업 전략이 빠진 통합은 성공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만 남고 지역을 소멸시키는 통합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광양만권이 석유화학·철강이라 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생산기지이

자, 항만·에너지·물류·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국내 대표 제조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초 원료·중간재 공급지’라는 역할에 머물며 소부장 국가 전략의 중심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산업 기능과 역할 분담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을 경우, 전남 동부권은 기존에 담당해 온 국가 제조 기능을 상실하고 인구 유출과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지역 소멸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여수 율촌·순천 해룡으로 연결되는 광양만권을 반도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 소부장 특화 제조 권역’으로 재편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여수·순천 상의는 2026년 여수상의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대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남 동부권을 국가 전략적 산업의 한 축으로 명확히 위치시켜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과 견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

‘광양사랑상품권’ 12% 캐시백
설 명절 맞아 소비촉진 기대

5개 분야 연계 캠페인 전개

여수시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시민 스스로 안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한다.

시는 가정, 학교, 직장, 교통 등 생활 전 영역에서 안전수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캠페인·홍보·진단·보험 등 5개 분야를 연계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다양한 연령대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안전교육 ‘맞춤형 안전학당’을 운영한다.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 6500여

명과 미취학 아동 24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 운영을 통해 안전 행동 실천을 제고한다.

또 계절·주제별 ‘생활 속 안전문화캠페인’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방송’을 병행해 시민과 방문객의 사고 예방 의식을 높인다. 특히 섬박람회 대비 안전 행동 요령을 쉽게 전파하고 민·관 협동 활동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다”며 “생활 속 작은 안전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총 30개 항목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 은열·한랭질환 진단비 등 3개 신규 보장항목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다”며 “생활 속 작은 안전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흥, 고향사랑기부제 ‘더 드림’ 추진

내달 20일까지 최대 1만원 상당 경품 증정

장흥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2026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더 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고향사랑e음’을 통해 장흥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기부자 전원에게

는 모바일 상품권 5000원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이벤트 종료 후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 5000원권 모바일 상

품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혜택도 마련돼 있어 최대 1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고향

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기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과 기부자 만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혜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 참석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 관광굿즈·농특산품 판매장 입점 공모

3월 로컬마켓 오픈 예정…지역경제·관광 활성화 기대

구례군은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굿즈 및 농특산품 판매장’을 빙구레스테이션에서 3월부터 운영한다. 이를 위한 판매장에 참여할 공급업체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20일까지며, 모집 분야는 관광 굿즈와 농특산품이다. 농특산품은 구례군에서 생산된 농특산품 또는 이를 활용해 제조·가공한 제품이 대상이며, 관광굿즈는 구례의 특성을 담아 관광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구례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사회적경제조직·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돼 있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전략사



업팀 (061-780-2996)으로 하면 된다.

군은 마켓 운영을 통해 구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구례만의 매력을 담은 상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물류 관광 도시로서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구례=김귀진 기자 kkjin@